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LAWYER OF THE YEAR 2015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이재현 회장, 윤석금 회장 양형 갈린 이유는?
무인자동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IT법 회고와 새해 전망

수많은 사건을 뒤로 하고 2015년이 저문다. 주목할 사건이 많았던 올해는 특히 분야별로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리걸타임즈가 '로펌 선호도' 설문조사에 나타난 사내변호사들의 의견과 업무실적, 리걸타임즈 자체평가를 종합해 '2015 올해의 변호사(Lawyer of the Year)' 18명을 선정했다.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솔루션을 지향하는 18명 스타변호사들의 활약상을 그들이 예상하는 새해 전망과 함께 조명한다. 편집자

2015 올해의 변호사



해외 정철 변호사

‘앵커’ 역할 자임…미얀마만 140건 자문

“**전**에는 본사의 파트너들이 직접 해외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해외사무소를 열어 대부분 파트너급 변호사들을 파견하고 있는 지평에선 본사와 현지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자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평의 정철 변호사는 지역별로 나눠 해외업무를 관장하는 서울 본사의 지역 담당 파트너 중 최선임으로 통한다. 자문수요가 많은 미얀마를 비롯해 중국, 중남미가 그가 관장하는 지역으로, 마치 방송국의 앵커처럼 서울 사무소에서 해외사무소를 지휘하며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놀부 프랜차이즈 사업 자문

올 한해 미얀마 지역에서 지평이 수행한 자문사례는 일부 사업을 보류 중이거나 검토만 하고 끝난 시안을 포함해 140건 정도. IG상사를 대리한 시멘트 플랜트 합작, 한화(무역)의 주상복합시설 시공 및 분양, IBK캐피탈의 소액금융회사(MFI) 진출, CJ대한통운과 미얀마 국영 물류회사인 육상운송청(RT)과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한국 기업의 수많은 아웃바운드 거래에 자문했다. 또 몽골, 일본, 중국, 홍콩에선 놀부를 대리해 이미 진출했거나 신규 진출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각종 계약에 자문하는 등 수많은 기업이 정 변호사의 손을 거쳐 미얀마, 몽골, 중국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앵커 변호사’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 정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투자는 지평 본사에서의 킥오프(kick-off) 미팅-현지 출장 및 현지에서의 기본적인 협의-한국 복귀 후 계약서 준비-현지 협상, 계약서 수

정 및 계약체결의 단계를 거쳐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등에 위치한 지평의 해외 사무소에서 현지 법제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서치와 현지어로 된 각종 문서의 번역 및 요약 등 최신 정보에 입각한 지원을 제공,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



서울대 법대/사시 41회/남가주대 로스쿨(LLM)/뉴욕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캠핀스키와 호텔 운영계약 수행

정 변호사는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과 관련해 해외투자자와의 토지매매를 대리하고, 부산 광안리 인근에 럭셔리 호텔을 개발 중인 GL시티를 대리해 최근 스위스의 유명 호텔운영사인 Kempinski와 호텔 운영계약을 맺는 등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거래를 수행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 변호사는 일단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사업 착수 후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투자에 요구되는 절차와 규제 내용을 모두 드러내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